

영암단감,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

김영재 농가 영예...구례 배 김현준·고흥 참다래 김덕근 특별상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김영재 농가의 단감이 대상을 차지해 전남이 전국 최고의 명품 과일 생산지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국산 과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대비 국내산 과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사과, 배, 단감 등 일반과수 7종과 밤, 뽕은 감 등 산림과수 4종을 대상으로 외관 및 개측, 과수원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 1점과 과종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46점을 선별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장관 표창과 200만원, 우수상·특별상 등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영재 농가는 영암 신북면에서 3ha의 단감을 재배하는 26세의 청년농업인이다. 2018년 3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에서 배운 재배기술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단감 농사를 시작한지 약 5년여 만에 이룬 쾌거다. 구례 김현준 농가와 고흥 김덕근 농가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두 농가 모두 지

역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산 신품종 재배에 도전하는 선도 농업인이다. 김현준 농가는 구례의 청정환경에서 키워낸 신품종 '조이스킨' 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김덕근 농가는 20년 이상 축적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홍양' 참다래 재배에 성공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전국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한 농업인들을 축하드린다"며 "지역 명품 과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김영재 농가 단감이 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과수 생산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부터 도 자체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신규 지원해 명품과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화순 솔매음·효산리 전남도 민간정원 지정

전남도는 7일 "최근 보유수종의 가치가 높고 풍부한 녹지 면적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화순 솔매음정원(사진)과 효산리정원을 전남 제19호, 제20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두 정원 모두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해 이미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특히 효산리정원은 산림청의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순 이양면에 자리잡은 솔매음정원은 정원주가 소나무(솔)와 매화나무(매)를 좋아해 정원의 주인 나무로 가꿨고 매화꽃이 필 때 새와 벌이 찾아와 내는 소리가 마치 음악(음)같아 이름을 붙였다.

정원 면적 2만6천320㎡ 규모로 수려한 향나무가 맞이하는 웰컴정원, 멸종위기 식물원, 자생화원 등 주제 정원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원주가 31년 동안 모아온 국내 희귀·특산종을 포함한 약 1천여종의 수목과 초화류는 여느 정원에서 쉽게 보기 힘든 보물과 같은 자원으로 평가됐다.

화순 도곡면에 위치한 효산리정원은 풍경식 정원으로 벤치에 앉아 자연스럽게 정원의 풍경을 조망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시골풍 정원을 꿈꾸며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추구했다.

7천㎡ 규모에 목수국, 그라스 등 주제 정원과 카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화려한 색상의 초화류와 향아리, 담쟁이 등 소박하면서도 정겨움이 묻어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은 "솔매음정원과 효산리정원의 민간정원 등록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하고 이를 브랜드화해 전남의 새로운 산림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민간정원 20개를 등록했다. 이 가운데 쌍산재(구례)와 천개의 향나무숲(구례)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다. 전남도는 등록된 민간정원의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특성화를 위해 정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도동물위생시험소

전염병 청정화 총력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종돈장 25개소와 돼지정액처리업체 (돼지인공수정센터) 3개소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종돈장·정액처리업체의 씨돼지와 사육단계별 비육돈을 대상으로 높은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13종을 검사하며 축사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관리 지도점검도 함께 한다. 기본 검사 항목은 구제역,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5종이며 우수 종돈장은 살모넬라병, 돼지유행성 설사 등 8개 질병을 추가 검사한다.

이들 전염병은 돼지를 분양하는 종돈장 특성상 종돈장 자체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양돈장으로 전파 우려가 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질병 감염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알리고 이동제한, 도태권고 및 살처분 명령 등 방역조치를 한다.

이용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 등 씨돼지 생산농장의 정기 모니터링 검사로 전염병 청정지역을 지키겠다"며 "최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질병 없는 청정한 종돈장을 위해 농가에서는 정기적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3분기까지 종돈장 사육돼지 4천415마리를 검사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 양성률을 96%로 확인했고,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경우 1농가 9마리를 진단했다. /김재정기자



서창농협이 지역 사회 환원 사업으로 22년째 사랑의 쌀·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백미 140포, 김장김치 1천포기, 젓갈 500kg 등 후원물품을 취약 계층에 전달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나눔 경영 실천”...서창농협, 쌀·김치 나누기 행사

백미 140포·김치 1천포기 등 22년째 실천

농협광주본부는 7일 “서창농협이 나눔 경영 실천과 지역민과의 온정 나눔을 위해 ‘2022 사랑의 쌀·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창농협의 ‘사랑의 쌀·김치 나누기

행사’는 2001년부터 22년째 진행하고 있는 지역 사회 환원 사업이다. 원로청년부, 청년부,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서구 밀 작목반에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취호남청과>, <취천지장례문화원>, <취해성수산> 등 지역 기업에서도 나눔 활동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백미 140포, 김장김치 1천포기, 젓갈 500kg, 라면 140상자, 굴 140상자, 화장지 140팩, 우리밀 세트 140

상자, 건강음료 140상자, 떡 100상자 등 후원물품을 취약농가,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에게 전달했다. 또 9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방한용품도 전달했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위해 애써준 후원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서창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북광주농협, 광주 최초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농협광주본부는 7일 “북광주농협이 농협중앙회 선정 2022년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은 윤리 경영 활동으로 농협 청렴도 제고에 모범이 되는 농·축협을 발굴하고 선도 농·축협 위상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비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 ▲지역 사회 상생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8개 농·축협을 선정해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수여한다. 북광주농협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선도적인 영농지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금융 사기 예방 활동을 통한 고객 자산 보호 등 다양한 윤리 경영 실천으로 광주 관내 농



협 최초로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과 조합원·고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청렴하

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개선·발전시켜 농업인·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북광주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불가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주 토요일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흥군 Jangheung County

문의 : 062)650-2099